

# 이스라엘 시가전 공식화에 가자지구 폭풍전야

### 2개월째 접어든 전쟁...이 "가자시티 심장부에...목표물 1만4천개 타격" 국제사회 압박에도 '마이웨이'...네타냐후 "무기한 안보 책무" 발언 파장

이스라엘이 궤멸을 선언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 가자시티를 전면 포위하고 시가전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7일(현지시간) 하마스의 기습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발발한 전쟁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인도주의적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교전 중단조치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스라엘은 교전을 중단하지는 미국의 제안을 거듭 거부하는가 하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재점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엇박자를 내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군(IDF)이 지금 가자시티의 심장부에 있다"며 "도로로, 또는 장갑차와 탱크 등을 타고 공병들과 함께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도 TV 연설을 통해 "지상작전을 통해 하마스 지휘부와 진지, 땅굴 등 다수를 파괴했다"며 가자시티 시가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아이하야 신와르가 병커에 숨어 있으며 동료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IDF와 정보기관은 신와르가 지난달 초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추적해왔다.

IDF는 또 대전차 미사일 등 발사대와 정보 자료가 있는 가자시티의 하마스 전초기지 1곳을 장악하고 박격포 발사대 수십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개전 이후 가자지구 내에서 1만4천개 이상의 하마스 목표물을 타격하고 100곳 넘는 지하터널 입구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 하마스 지

휘부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심장부 가자시티를 에워싼 뒤 지하터널 등 군사시설과 장비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를 색출해 제거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2005년 가자지구 내 병력과 정착촌 주민을 철수시킨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에 들어가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09년 1월3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첫 지상전은 15일 만에 휴전 합의로 끝났다. 당시 팔레스타인인 약 140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7~8월에는 이스라엘 청소년 납치·살해 사건으로 이른바 '50일 전쟁'이 발발해 팔레스타인인 약 2100명이 사망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개전 이후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1만30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어린이가 4200명 이상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200만명 이상이 고립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교전을 멈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6일 인질 석방을 위해 사흘간 교전을 중단하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미국 매체 약시오스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흘 동안 하마스가 인질 10~15명을 석방하고 모든 인질의 신원을 검증한 뒤 명단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구체적 제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보다 사흘 전인 이달 3일에도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인도적 교전중단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미국은 '인도적 교전 중지' 대신 '전술적 교전 중지'라는 새로운 표현을 써가며 이스라엘을 계속 설



이스라엘군(IDF)이 7일(현지시간) 공개한 가자지구 내 지상 작전 수행 모습.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시티의 심장부에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득하고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신뢰할 수 없는 데다 2014년 전쟁 당시 교전중단 기간 이스라엘 병사가 하마스에 살해·납치된 사건 때문에 교전중단에 유보적이라고 약시오스는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한술 더 떠 하마스 소탕 이후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내놔 맹방 미국과 계속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6일 미국 ABC 뉴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체적인 안보 책무를 무기함으로 가질 것으로 본다"며 "그런 책무를 갖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하마스 테러가 분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가로 공존한다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효율적 재편과 활성화를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 찰스3세, 尹 대통령 국민방문 앞두고 英 한인타운 방문

한영 수교 140주년 전시 등 관람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 방문을 앞두고 8일(현지시간) 유럽 최대 한인타운인 뉴몰든을 찾았다.

찰스 3세 국왕은 지역사회 대표들과 청년들을 만나는 것을 비롯, 한국 음식 발표회, 한인 문화공연,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전시 등을 관람하며 한인 사회와 접촉면을 넓힐 예정이다.

런던 킹스턴구(Royal Borough of Kingston upon Thames) 뉴몰든(New Malden)은 영국뿐 아니라 유럽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지난해 9월 즉위한 찰스 3세 국왕이 뉴몰든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비롯해 다른 왕실 고위 인사가 한인타운을 공식 방문한 기록도 없다.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인 1992년 11월에 한국

을 방문한 인연이 있다.

이번 일정은 이달 윤 대통령 부부 국민 방문 계기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가 5월 대관식을 치른 후 처음 초청하는 국민이다. 즉위 후에는 영연방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찰스 3세는 전날 즉위 후 의회 개회식에서 진행된 첫 '킹스 스피치'를 통해 "나는 이달 국민 방문하는 한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찰스 3세 국왕의 한인타운 방문은 영국 등 국제 사회에서 탈라진 한국의 위상과 한류 인기 상승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유럽연합(EU) 너머로 눈을 넓히며 한국과의 관계에 부쩍 공들이고 있다.

영국은 이달 초 개최한 인공지능(AI) 안전 정상

회의와 관련, 내년 5월 중간 점검 회의를 한국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뉴몰든은 런던(Greater London) 남서부 끝자락에 있는 지역으로, 1970년대부터 한인타운이 형성됐다. 킹스틴구는 올해 유럽에서 처음으로 김치의 날(11월 22일)을 지정하기도 했다.

국왕의 한인타운 공식 방문은 이민 역사가 길지 않은 한인들이 영국 사회에서 보다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인 사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뉴몰든에는 한인이 약 1만명 모여 살고,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면 최대 2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전체 한인 약 4만명 중에 절반이 인근 생활권에 있는 셈이다.

뉴몰든은 한때 '뉴몰동'이란 별칭으로 불렸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난민으로 온 탈북민들이 유입돼 교민, 주재원들과 어울려 지내며 '리틀 평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연합뉴스

## 佛서 버리려던 그림, 알고보니 334억 명화

이탈리아 화가 치마부에 작품

프랑스의 한 가정집에서 쓰레기로 버려질 뻔한 그림이 2천400만 유로(약 334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13세기 명화로 드러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치마부에(1240~1302)가 1280년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는 4년 전 평범한 가정집에서 자칫 폐기될 위기를 겪었다.

집 정리를 하다 이 그림을 발견한 90대 여성은 그냥 버리려다가 한 경매사에 평가를 의뢰했다.

감정 결과 이 그림은 치마부에게 생전 완성한 작품 15점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치마부에는 기존 비잔틴 양식 미술에서 벗어나

르네상스 예술의 문을 연 대가로 평가된다.

몇 달 뒤 경매에 부쳐진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는 질레 출신 역만장자 알바로 사이에 벤덱과 그의 아내에게 2천400만 유로에 낙찰됐으나, 프랑스 정부는 같은 해 해당 그림을 국보로 지정해 외국 반출을 금지했다.

아울러 루브르 박물관에 이 작품 구매를 위한 기간 30개월을 부여했다고 한다.

루브르 박물관은 최근에서야 그림 소유주와 거래를 마쳤고 2025년부터 이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루브르 박물관이 이 작품 구매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누구와 거래했는지 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로랑스 데 카르 루브르 박물관 관장은 이 그림이 "미술사에서 주요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박물관이 이를 소유하게 된 건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품질보증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